



제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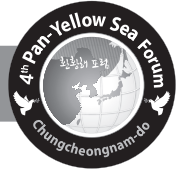
호남호황해 포럼

Pan-Yellow Sea Forum

Contents

한국어..... 3

English..... 23



한국어

프로그램

날짜	시간	내용	
11. 1 (목)	09:00~09:30 (30')	등록	
	09:30~10:10 (40') 사비홀A/B	개회식&기조연설	<p>개회사 : 양승조 충청남도지사</p> <p>환영사 : 홍재표 충청남도의회 제1부위원장 박정현 부여군수</p> <p>축사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 대사</p> <p>기조연설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p>
	【특별세션】 10:10~11:40 (90') 사비홀A/B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환황해 평화정착 전망	<p>사회 : 유명환 세종대학교 이사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p> <p>기조발제 : 양승조 충청남도지사</p> <p>토론 :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진소춘 주한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p>
	11:40~13:00 (80') 달솔룸	<p>공식 오찬 <주재 : 충청남도지사></p> <p>오찬사: 윤황 충남연구원장</p> <p>건배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전 외무부 장관</p>	
	【본세션1】 13:00~14:30 (90')	<p>【1-A】</p> <p>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사비홀A)</p>	<p>사회 : 정구종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고문 겸 한중일 문화교류포럼 대표</p> <p>발표 : 고일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최영자 충남여성포럼 공동대표 아리모토 키요시 오카야마현 나기쵸 부시장 카네다 토모미 오카야마현 나기쵸 총무과장</p> <p>토론 : 김기창 군장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겸임교수</p>
		<p>【1-B】</p> <p>한중해저터널 추진방안 (충남기점 당위성) (사비홀B)</p>	<p>사회 : 강희정 국립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p> <p>발표 :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진평원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연구소 경제 지리 및 구역발전연구실 주임</p> <p>토론 :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류레이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당위 부서기</p>
	14:30~14:50 (20')	휴식	

2018.11.01.(목) - 11.02.(금) 롯데부여리조트

날짜	시간	내용	
11.1 (목)	【본세션2】 14:50~16:20 (90')	[2-A]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사례 및 발전방안 (사비홀A)	사회 :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발표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코세키 카츠야 일본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장 야마모토 야스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토론 : 유선종 아산시 경제환경국장 이강학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현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양홍평 중국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2-B] 한중일 싱크탱크 라운드 (사비홀B)	사회 : 윤황 충남연구원장 발표 : 권영현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 옌팅바오 하북성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장 장쑤춘 산둥성사회과학원 원장 시나가와 마사루 일본 사가대학 경제학부 교수
	16:20~16:40 (20')	휴식	
	【본세션3】 16:40~18:10 (90')	[3-A] 황해지역 수산자원 관리와 보호 (사비홀A)	사회 :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발표 : 김수암 부경대 명예교수 권인평 UNOPS 황해대양생태계 프로젝트 기술 고문 및 책임자 키요타 마사시 나가사키대 수산환경대학원 교수 토론 : 최명범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원장
		[3-B] 한중일 기업협력과 투자 활성화 -도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비홀B)	사회 : 고경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 학과 교수, 전 충남경제진흥원장 발표 : 김선배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연구실장 권루이동 하북성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부연구원 한메이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사사키 카즈오시 광고제작회사 PLUX 소장
	18:10~20:00 (110') 달솔룸	공식만찬 <주재 : 문화체육부지사>	



개회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오늘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4회 환황해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먼저 포럼에 참석하기 위하여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국내외 전문가와 참가자 여러분을 22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기초연설을 맡아 주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 보특보님과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충남도의회 제1부의장님, 부여군수님, 주한일본대사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환황해(環黃海)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를 주제로 하여 열리는 네 번째 포럼입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환황해 지역의 시대적 도전과 과제를 점검하고 이 지역의 미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환황해 시대는 현실의 문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상생과 번영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환황해권의 한중일 3국은 시장과 경제규모면에서 전 세계 인구의 20퍼센트, 총생산의 25퍼센트, 교역액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현재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오랫동안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문화와 전통을 공유해왔습니다.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통교성, 문화적 공유성 등은 한중일 3국이 공유하는 힘이자, 상생과 번영의 파트너로서 그 적합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환황해 시대, 한중일 3국이 적극 협력해야 할 당위성이며 바로 여기에 오늘 ‘제4회 환황해포럼’ 개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포럼을 통해 한중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주시길 기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환황해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현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하는 방안을 찾는 길입니다. 이미 이를 위한 대장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 한중일 간의 2자 또는 3자회담도 연내에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이 환황해권 3국 앞에 다시 전개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환황해 평화정착 전망”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의 특별세션이 매우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저출산·고령화 극복문제, 수산자원 관리보호문제, 기업협력투자 활성화문제 등과 관련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이는 환황해권 3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를 통해 환황해권의 평화와 평화공동체 건설 구상,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엔 진행되는 3개 본세션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중일 싱크탱크 및 자치단체 라운드”, “황해지역 수산자원 관리와

보호” 및 “한중일 기업협력과 투자 활성화” 등에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황해권 3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공통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양극화란 3대 위기의 심화로 향후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해야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국가기관이나 민간연구소에서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사회가 얼마나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 100만 명이 넘던 대한민국의 출생아는 지난해 말 35만 명으로 줄어 출산율 1.0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라면 2,100년 대한민국 인구는 2,468만 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이면 33만명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고령화율은 이미 17.1%에 달하고 있고 공주와 보령 등 도내 10개 시군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의 위기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7월 대한민국 충청남도 제38대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진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남 지방정부에서부터 이 위기를 극복할 선도적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충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출산과 결혼을 미루지 않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양극화로 인한 박탈감에 좌절하지 않는 그런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포럼이 우리 충남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실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충남연구원과 동아시아재단, 충청남도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병국입니다.

만추의 들판이 고즈넉한 황금햇살에 촉촉히 젖어가는 시기에, '환황해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회 환황해포럼'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의 중심 부여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네 번째로 뜻깊은 본 포럼을 마련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윤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

우리가 '환황해'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충남의 미래이자,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오랜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는 지난 9월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간 군사·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첫발을 시발점으로 민족을 뛰어 넘어, 평화통일을 기회로 삼아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기에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황해지역 수산자원 관리와 보호' 등의 다양한 어젠다를 다루게 되어 한·중·일 지방정부가 처해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당 국가들은 서로간의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어야만 하며, 각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 나가면서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모쪼록 포럼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4회 환황해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 병 국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수 박정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여러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유산의 도시 부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황해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회 환황해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행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으며 세계역사도시입니다. 백제는 문화대국이자 해상강국이었고, 중국 영향을 받아 일본 아스카에 수준 높은 문화와 기술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백제의 미학인 ‘검이불루 화이불치’는 현재에도 한국인의 미학으로 자랑스럽게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당시 황해를 통해 활발한 교역과 문화교류를 추진했던 역사의 땅 여기 부여에서 한·중·일 전문가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환황해권의 경제교역 증가로 경제비중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류, 산업, 유통, 관광 등에서 지역자원의 차별화된 특성을 활용한 미래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갈등과 경쟁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포럼이 한·중·일 지방정부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나아가 우호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평화정착은 물론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
부여군수 박정현



축사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시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해주신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충남을 방문해주신 중앙부처 관계자분들과 국내 전문가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요즘은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계절이며, 또한 한반도는 분단이후 남북한 간에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충청남도에서 “환황해 상생과 번영의 시대”라는 주제로 4번째 환황해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없는 경제성장은 없으며 이는 국내적으로나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하는 것은 민족의 생존을 위함과 나아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금년 포럼의 주요 세션은 환황해의 평화정착, 저출산·고령화 극복, 한중해저터널의 추진 등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며 환황해권 국가인 한중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도는 도청을 내포로 이전하며 해양강도를 위해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며 이런 여파가 국내경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높은 성장률을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순환구조로 만들어야합니다. 일본과는 민족적인 감정을 넘어 세계경제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과 정립이 필요합니다.

포럼을 통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두터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한중일의 전문가들은 특정주제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한중일 3국간의 동반자적 외교를 만들어가는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이 세계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환황해권 3국의 경제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힘써주신 산업통상부, 외교부의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충청남도, 동아시아재단, 충남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한중일 우리가 손을 잡고 상생과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 11. 1
국회의원 어기구

기조연설

평화의 새 시대와 상생과 번영의 환황해

문정인 |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평소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 4회 환황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환황해 포럼은 충청남도과 황해권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매우 창의적이고 실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환황해 포럼을 이렇게 성대하게 마련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2017년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숨 막히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 5월 9일 취임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아주 심각한 안보 딜레마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15차례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넘어 예방전쟁, 선제타격, 그리고 코피 전략 등 실제적인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내 비쳤습니다. 일촉즉발의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작년 8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은 한반도에 이들 간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제재는 우리를 매우 어렵게 했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매우 위중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반전을 맞았습니다. 지난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7월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실패로 끝나면서 한반도에는 한 때 난기류가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9.18-20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교착상태는 타개되고 한반도에는 비핵화와 평화의 기운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한반도 분단, 전쟁, 그리고 비극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던 판문점. 그 곳에서의 12시간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평화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 앞에서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서명식을 보던 북 김여정의 “현실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감동 어린 발언처럼 이는 한 편의 초현실적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극심한 위기감과 전쟁의 공포에서 몸서리 쳤던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슬로건에 요약되어 있듯이, 남북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2007

년 1,2차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선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과 군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실속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 부분에서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육해공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로 두 정상은 합의 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체제를 추동해 나가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은 여러 면에서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이 내거는 목표가 담대하고 파격적이라는 점입니다. 70년 가까이 묵은 전쟁을, 그것도 금년 안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점진주의적이고 중장기적 접근에 길들여져 온 우리에게 이 두 정상의 의기투합은 참으로 사변적인 발상의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과거에 찾아 볼 수 없는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공을 들인 것은 북미관계 개선을 추동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6.12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네 가지 사항에 합의 했습니다. 첫째, 북미 관계의 새로운 시작, 둘째,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셋째, 판문점 선언 재확인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마지막으로 6.25. 당시 포로 및 행방불명된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70년 넘게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안전 보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미 회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VID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가 빠져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남북미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가 CVID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도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한미군사 훈련 중단이 한미동맹의 전투준비태세를 약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이완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잠정 중단이지 축소나 폐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 1992, 1994, 1995, 1996년 4차례에 걸쳐 팀 스피리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적 조치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으로 나오면 즉각 재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합의해도 불구하고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CVID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선 선언 및 사찰, 후 종전선언'을 타진했으나 북측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북한 측은 서로 신뢰도 쌓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대한 일체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 신고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우선 종전선언을 해 불가침 입장을 확고히 하고 신뢰를 구축한 후에 신고, 사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9월 초 예정이었던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 방문도 이 문제에 난항을 보이면서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9.19. 평양선언과 한반도 평화

이런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한 것이 지난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 6월 1차,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에 이르기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세 차례 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 2차 정상회담 모두 뜻 있었지만 이번 3차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새로웠습니다. 능라도 5.1. 경기장 집체행사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두 정상이 같이 백두산 장군봉과 천지에 올라 민족의 미래, 평화와 통일을 고민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과 면에서도 1, 2차 정상회담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1차 6.15 공동선언이 남북관계에 대한 총론적 합의였다면 2차 10.4. 정상선언은 다분히 각론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9.19. 평양선언은 지극히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평양선언 제1조입니다. 이것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담고 있는 불가침 정신을 되살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및 공동어로,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군사공동위 구성 등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6개조 19개항으로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그 구체성이 더해 보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는 그냥 놓아두고 이런 합의를 한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라고 폄하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나 서해에서 재래식 군사부문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그에 따른 확전이 핵 대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채택된 군사 분야 이행합의는 그러한 우발적 충돌을 막고 한반도 평화의 절반을 이루는 쾌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선언 5조 비핵화 분야에 있어서 남북 합의 또한 파격적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가 북미 양자 간 현안이라 주장하며 남측과 이 분야에 대한 협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괄적 합의에 그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관성을 깨고 파격적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평북 철산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에 의거 상응 조치를 하면, 평북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계속해나간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62년 원자력연구소 설치 이래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로 통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핵무기의 원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흑연감

속로, 연료생산 공장, 방사화학 재처리 시설은 물론 천연우라늄을 농축해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드는 원심 분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스탠포드 대학의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제안은 미국이 거부 할 수 없는 파격적 제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북미간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 방문을 가능케 한 것도 이 5조 합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선언 제2조에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제3조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와 제4조 문화·예술·스포츠 교류와 10·4 선언,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는 유엔 제재와 관련이 없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평양정상회담은 형식이나 내용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문제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에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정상 간의 신뢰가 충분히 쌓였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교착 상태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환황해권과 충청남도에 주는 평화와 번영의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73주년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 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금년 들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큰 열매가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9.19. 평양선언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새로운 정세는 환황해권과 충청남도에 두 가지 큰 합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는 충청남도가 그 동안 표방해 왔던 환황해권 평화구상에 주는 합의이며, 다른 하나는 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주는 합의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서해 바다를 회고해 보십시오. 천안함 피폭에 이은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내 황해권을 전쟁의 바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해에서 남북 간 군사대치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지 워싱턴 호를 필두로 한 미 항모전투단이 격렬비도까지 북상했습니다. 미 항모가 그렇게 서해 깊숙이 들어왔던 사례는 그 동안 없었지요. 중국도 이에 맞서 해군력을 비상태세 모드로 가동시키고 급기야는 황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고요했던 서해 바다에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남북한 군사 긴장이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지요.

이제 그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평양선언 부속 군사이행 합의서 3조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하고 여기에 시범적으로 남북 공동어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남과 북 사이에서 우발적 해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합의가 이행되는 한 서해에서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은 크게 줄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강대국들이 개입할 공간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미래에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

습니다. 이는 바로 충남의 생존과 번영의 공간인 환황해권의 평화를 담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변화는 충청남도과 서해권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평양선언에는 문재인 정부가 계획 해온 한반도 신 경제지도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 경제지도는 목포에서 충남과 수도권, 개성과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 벨트로서 환서해권, 부산에서 동해지역과 원산, 청진, 나진을 통해 러시아로 연결되는 에너지 자원벨트인 환동해권, 그리고 DMZ 지역에서 이를 동서로 연결하는 환경관광 벨트로서 접경지역권, 이렇게 3대 경제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동해안 등 권역별 남북 경제 협력 벨트를 마련, 동서를 잇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평양선언에서는 이 구상의 일부 실행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물론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를 감안할 때 북한이 과감하고도 구체적인 비핵화 행보를 보이기 전에 이러한 합의가 실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경제협력은 시간이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남 경제와 환황해권 번영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이 충청남도에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가져 올 수 있겠냐고 회의적인 의견을 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업 구상으로는 서해 경제벨트가 수도권, 개성공단,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기반으로, 여기에는 경의선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성공단 재가동,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네트워크에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환서해물류망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충남 패싱 (passing)'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3대 벨트에 충남의 지리적인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정적, 소극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 구상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충청남도를 거치는 환서해 경제벨트의 물류망 구축이나 충남,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전략적 협력을 해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지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맺는 말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오랫동안 간직해 온 목표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 회담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발판을 만들어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로 향하는 길 위에는 숏한 제약과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인식할 때라야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신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의 봄'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이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평화의 시대에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상생과 번영의 충남과 환황해 시대를 열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상상과 용기, 그리고 부단한 혁신과 단합이 있으면 평화와 번영의 새 지평은 쉽게 열릴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석자 소개 참석자 소개 순서는 식순에 따름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양승조는 제 38대 충청남도지사이다.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후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4년을 시작으로 제 17, 18, 19, 20대 국회의원 재직 후,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청남도지사직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민주당 서해안유류 피해대책특위 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홍재표**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홍재표는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이다. 신성대학교에서 토목환경과를 졸업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 충남부회장,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중앙당 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충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 시민환경포럼 조직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있다. 2006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박정현**

부여군수

박정현은 제 38대 충청남도 부여군수다. 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전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체육회부회장, 정책특별보좌관직들을 맡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충남선대위 총괄선거대책 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부여고등학교 졸업 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는 1977년도에 일본 외무성에 입성하였다. 현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며, 외무성 차관보, 네덜란드 대사, 국제법무국장, 외교정책국장 등 외무성 내의 여러 부처에서 직책들을 맡아왔다. 1977년 도쿄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정인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UC 샌디에고 글로벌정책전략대학원 크라우스 석좌연구원, 영문 정책 계간지 Global Asia 편집인을 겸임 중이다. 문정인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아위원회(장관급) 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냈다. 또한 미국 국제정치학회 (ISA) 부회장 및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문정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각종 정부부처 자문을 맡은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개혁위원회 위원장과 국방개혁추진단 위원으로 국방개혁에 참여하였다. 문정인은 1·2·3차(2000년, 2007년,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한 유일한 학자이기도 하다. 현재 아태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 공동의장, 아시아연구기금 이사장, 태평양세기연구소(PCI) 및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이기도 하다. 또한 동아시아재단 이사 및 세계경제포럼(WEF) 한국 글로벌어젠다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 Public Policy Scholar Award, 북경대학교 Lixian Scholar Award, UCSD Pacific Fellowship Award 등을 수상하였다.

**유명환**

세종대학교 이사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2010. 9 외교통상부 장관을 끝으로 37년간의 공직에서 물러나 지금은 세종대학교 이사장 과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직업 외교관으로서 외교부 본부에서 대변인, 미주국장 및 1 차관을 역임하였다. 주일대사로 근무 중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초대 외교 통상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그 이외에 2002-2004년에는 주 이스라엘 대사와 2004-2005년 주 필리핀 대사를 역임한 후에 본부 제2 차관 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주 유엔 공사로도 재직한 후 청와대 외교 비서관으로 귀국하였다. 1998년에는 미주국장을 마치고 주미 정부공사로 부임하여 2002년까지 오랜 기간 워싱턴에 근무하면서 많은 인맥을 구축했다. 퇴직 후 2010-2011간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APARC)의 Visiting Scholar로 있으면서 지난 20년 간 진행되었던 미·북한 핵 협상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2015년에는 한·일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최고 훈장인 욱일대수장을 수여 받았다.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전장관은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하였다.

김 전장관은 외교부에서 36년 여 동안 재직하면서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외교부차관 등 다양한 고위직 업무를 맡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해 활동해왔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 겸 빈 국제기구대표부 대사와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재임하였다. 김 전장관은 2012년 7월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구성한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고위급패널'의 일원으로 임명되어 2015년 이후의 개발협력목표를 작성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김 전장관은 외교부에서 퇴임한 후 2015년 3월까지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장과 국제대학원 초빙석좌교수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한양대 국제학부 특훈교수와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는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다. 게이오대학교에서 학사(1969년), 석사(1971년)를 거쳐 1986년에 정치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1972년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1975년부터 게이오대학교 법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동대 지역연구센터 소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법학부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큐슈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했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하와이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중국소련연구소 객원연구원을 부임했다. 전문 분야는 현대 남북한 정치론 및 국제정치론이다. 저서·편저·논문으로 <한국 분단의 기원>, <한국전쟁>, <냉전기의 국제정치>, <기로에 선 북한>, <탈냉전의 한반도>, <김정일 시대의 북한>, <시장·국가·국제체제>,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위기의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공동체구상>, <북한과 인간안보> 등이 있다.



진소춘

주한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진소춘은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 후 1994년 중국 외교부에 입부하였다. 이후 주조선 중국대사관 사무관, 서기관, 아시아국 서기관, 주한중국대사관 정부 부과장, 한반도사무판공실 서기관, 아시아국 과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았다.



윤항

충남연구원 원장

윤항 원장은 건국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남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그는 2000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립경찰대학교 연구관에서 일하였고 2012, 2014, 201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직을 역임하였다. 현재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교수직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원직, 그리고 대통령직속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직을 가지고있다.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전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공로명은 전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자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으로, 부산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2007-2017)를 지냈고, 한일포럼 회장직(2003-2012)을 거쳐 현재는 한일포럼 고문으로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수학했다. 외무부에 입부(1958)한 이래, 워싱턴, 동경, 캔버라, 카이로 등지의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였으며, 주 브라질 대사(1983-86), 뉴욕 총영사(1986-89), 주 구소련/러시아 대사(1990-92), 외교안보연구 원장(1992-1993), 주 일본 대사(1993-1994)를 거쳐 외무부 장관 (제25대, 1994.12.-1996.11.)에 임명됐다. 퇴임 후, 한국통일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1997)을 지냈다. 1992년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제 6, 7, 8차 회담), 남북핵통제위원회 남측 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1992-1993)을 지냈다. 그 밖에 동국대학교 석좌교수(1997-2004), 한림대학교 석좌교수(2004-07), 세종재단 이사장(2008-2011)을 역임했다.



정구종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고문 겸 석좌교수 ·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

정구종은 1944년 충북 영동 출생으로 연세대 석사 및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아일보 주일 특파원·동경지사장·편집국장(이사)과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 donga.com 대표이사 사장·한국온라인신문협회장을 역임했다. 일본국제교류기금Fellowship에 의한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한중일 문화교류포럼 대표·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동서대 석좌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고문 및 일본정치학회 회원·일본선거학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한일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고일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이다. 공주 대학교에서 경영행정학과 석사를 취득하였다. 태안군 의회 전문위원 (2005-6), 농업기술 원 농촌지원국 교육정보과장(2013),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 과장(2015-2016), 그리고 기후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장 (2016-2017)으로 일했다.



김기창

군장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겸임교수
사회복지법인 희망송산 마실노인복지센터장

현재 군장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겸임교수 겸 사회복지법인 희망송산 마실노인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이후, 단국대학교 보건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우리 좋은아카데미평생교육원, 통일교육위원, 아산시인권 위원회, 아산시푸드뱅크 등 위원 및 원장직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 아산시노인복지공로자 표창장을 수여 받은 바 있다.



최영자

충남여성포럼 공동대표

최영자는 충남여성포럼 공동대표이다. 단국 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에서 사회 복지를 전공 하였고 보건복지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천안시 장기요양등급한정 위원 및 당진시 정책자문, 투자 심사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09년 충청남도 평등문화가정상, 2017년 국민 건강보험공단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강희정

국립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강희정은 국립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이다. 중국인민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중경상학회 회장직과 국립 한밭대 국제교류원장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충청남도 국제자문역을 맡고 있다.



아리모토 키요시

오카야마현 나기초 부시장

아리모토 키요시는 오카야마현 카츠타군 나기초 부시장이다. 나기초 읍사무소에 1974 년 입소하여 보건복지부장, 지역포괄지역센터 소장, 총무과장, 그리고 선거위원회 사무총장직 등을 역임하였다.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김상환은 현재 호서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다. 김교수는 1982년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5년 방콕 아시아공과대학(AIT)에서 지반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영국 Oxford University에서 1996년 토목공학 박사학위(터널공학)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터널공학, 토질 역학, 기초공학 및 지반구조 상호거동 모델링이다. 150 편이상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지반응용생체공학과 법 지반 공학에 있어서도 연구하고 있다. 토질및기초기술 사이며,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반 또는 터널 엔지니어 및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20년 이상 실무경험을 하였다. 한국 터널지하공간학회(KTA)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토목공학의 터널 및 지반공학분야 관련 국제학회에 이사 또는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 프로젝트에 기술자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네다 토모미

오카야마현 나기초 총무과장

카네다 토모미는 오카야마현 카츠타군 나기초 총무과장이다. 나기초 읍사무소에 1992년 입소하여 산업진흥 과장과 정보재 정과장직을 역임하였다.



진평진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 연구소 경제지리 및 구역발전연구실 주임

진평진 교수는 북경대학교 지리학 학사, 중국 과학원 지리학 석사, 그리고 중국인민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대학, 그리고 2012년 하버드 대학과 협동 연구를 했다. 연구 주제는 지역 공공 기반시설 구축, 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도시계획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중국 지리 학회 지리 경제 전문 위원회 부회장, 중국 지역 과학회 토지 전문 위원회 부회장, 교통 시스템 공학회 회원, 그리고 중국 토지 경제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박인성 교수는 한성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교수이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및 설계학 석사학위와 중국인민대학교에서 경제학(지역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충남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또한 200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중국 저장대학교에서 도시개발관리학과와 토지자원관리학부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였다. 1983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직을 역임하였다.



류레이

중국거시경제경영학회 회장
중국 인민대 경제학교 교수, 부국장

류레이 교수는 중국 거시경제경영학회 회장 겸 중국 인민대 경제학교 부국장이다. RUC에서 경영학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2008년 대만의 중국 경제연구소 방문연구원직과 2001-2002년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국제 학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 방문연구직을 역임하였다. 연구분야는 중국의 경제 발전과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끝없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조정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최근 진행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허재영은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다.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였다. 1989-2017년까지 대전대학교 토목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한국수자원학회 대전 총청지회 지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충남금강비전기획위원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위원회, 환경부 통합물관리비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원장이기도 하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우는 미국의 노스텍사스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제주평화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2007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연구실장직을 맡은바 있다. 전문분야는 계량분석을 이용한 국제협력, 평화연구 및 인권연구이다. 주요저술로는 2010년 문화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세계평화지수연구』를편저하였고 단독저술인 『한국인의 평화관 2010: 외교정책과 여론』, 『한국인의 평화관 2011: 통일정책과 여론』을 출간하였다. 학술논문으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본 북한 핵문제” 『국제지역연구』 2013,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for Cooperative Integration or Membership Game?” 『세계지역연구논총』 2013, “미국의 아시아와 중국의 아시아: 아시아로 회귀와 신형대국관계의 충돌” 『국제정치논총』 2014 이외에 다수의 학술논문을 출판하였다.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홍원표(1969년생)는 미래전략연구 전문가이다. 도시계획 석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및 인문지리학 박사 학위(베이징대학교 도시환경학원)를 받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 초빙부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등 미래전략 연구를 수행해왔다. 7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지방정부의 미래 연구, 글로벌화 전략, 수소에너지 등 에너지전략 등이며,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연구 관련하여 ‘충남의 미래 2040’ 연구총서 발간 책임자로서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연구총서를 출판하였다. 충청남도 글로벌화 연구 관련하여 2016년부터 지방외교 3.0전략 연구(2016), 충남의 글로벌화 전략연구(2017), 한강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2018)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수소에너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수소에너지특위 위원으로서 2016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관련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제4회 환황해포럼

코세키 카츠야

일본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장

코세키 카츠야는 시즈오카현 서울 사무소장이다. 시즈오카현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였다. 상공노동부 산업국제실, 산업부 노동정책실, 경제산업부, 지역외교국에서 재직한 바 있다.



김기현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이다.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경제개발과 정책분석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혁신기획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장직을 역임하였다.



야마모토 야스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야마모토 야스시는 2017년 9월부터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야마모토 사무차장은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언론 및 문화 담당 공사 (2014~2017년)와 경제 참사관 (2007~2010년)을 비롯해 여러 직책을 역임한 바 있다. 야마모토 사무차장은 일본 외무성 지역정책과 과장 (2013~2014년)과 내각관방 산하 납치문제정책기획실 과장 (2010~2013년)을 역임했다. 또한, 주한일본대사관 정치과 참사관 (2005~2007년)을 지냈다. 도쿄대학에서 중국철학을 수학했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동아시아지역학 석사를 취득했다.



양홍평

중국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양홍평은 현재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의 부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 고양시청에서 연수 이후 헤이룽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처장으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하였다.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수는 단국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동북아학회 회장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등을 중심으로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



유선종

아산시 경제환경국장

유선종은 아산시 경제환경국장이다. 순천향대 관광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1년부터 아산시의 기획 감사실, 공보체육과, 정책관, 공보담당관, 문화관광과, 사회적 경제과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가사회발전기여상, 행정혁신 유공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권영현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권영현은 충남연구원 연구실장이다. 충남국립대학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충남연구원에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2012)과 공공디자인센터장(2015)을 역임하였다.



이강학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은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이다.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당진시의회 전문위원, 당진시 기업지원과장 및 면천면장직을 역임하였다.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과 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하였다. 주요저서로 '지역발전정책론-이론과 실제', 지방자치의 쟁점, 지역행복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등이 있다.



옌팅바오

하북성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 연구소 소장

옌팅바오는허베이사회과학원 교수이다. 홍콩 Open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Innovation Driven 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수석연구원으로, 그의 주요 연구 주제는 혁신발전, 서비스 경제, 거시경제학이다. 그는 또한 하북성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전문가이며 국무원의 특별 수당 전문가이다.



김수암

부경대학교 자원생물학과 명예교수

김수암교수는 부경대 명예교수로 서울대학교에서 해양학과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워싱턴대 대학원에서 수산해양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알래스카 수산과학센터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으며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정회원이며 북태평양하성어류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장쑤춘

산둥성사회과학원 원장, 산둥대학교 객원교수

장쑤춘 원장은 산둥지방정책분야 연구자로, 2015년부터 산둥성사회과학원에서 원장을 맡고있다. 푸단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산둥지방정부 부장, 사무관, 검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산둥지방의 중요한 이슈들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가 진행했던 연구들은 중국개발연구상, 산둥 지방정부 과학발전상, 산둥지방정부 정책개발 성과상 등 지방 정부 차원의 상들을 수상하였다.



귀인평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수석기술고문/
황해대형해양생태계 관리자

귀인평은 2016년 11월부터 수석기술고문과 황해대형해양생태계 관리자로 유엔프로젝트 조달기구에서 근무하고있다. 베이징 법학전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5년 계획 및 파트너십 연구소 소장, UNDP 중국 프로그램 매니저, 선임 생물다양성 전문가, 중국 환경 보호부 대외 경제 협력 사무소의 선임 생물 다양성 전문가를 역임 하였다. 또한 중국 과학원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 (CITES)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있어 무역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중점을 둔 과학 당국에서 13년의 경력을 쌓았다.



시나가와 마사루

사가대학 경제학부 교수

시나가와 마사루는 사가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요코하마국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객원연구원,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 수산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그리고 일본농업경제학회 사무이사를 역임하였다.



키요타 마사시

나가사키대 수산환경대학원 교수

키요타 마사시는 나가사키대학 수산환경/환경과학 대학원 교수이다. 도쿄대학교에서 해양생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수산 연구 진흥원에서 어업과 해양생물교류 경감, 어업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공해어업과 해저어류량 관리 등을 연구 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 해양 생태계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어류자원, 생태계현황, 그리고 어업 영향의 평가이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서울대학교에서 이학사와 이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생물과 해양환경을 연구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연구본부장, 선임연구본부장, 제1 부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과학 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이기도 하며, 한국해양학회장,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부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국제해저기구(ISA) 법률기술회원, 국제해양광물협회(IMMS) 이사 등으로 활발한 국제 활동도 하였다. 2012년 해양을 주제로 한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최명범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원장

최명범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장이다. 경성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경성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어업진흥과 사무관으로 해양수산부에 들어가 해양생태과장, 해양환경과장 등 여러직을 역임하였다.



고경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전 충남경제진흥원장

고경호는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환경자원 경제학과 초빙교수이다. 단국대학교에서 이학사, 도시계획학 석사, 그리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원장과 충남도 경제정책특별보좌관직을 역임하였다.



사사키 카즈오시

광고제작회사 PLUX 소장

사사키 카즈오시는 광고제작회사 PLUX 소장이다. 2009년 한국에 진출한 일본 식품 회사의 주재원으로 한국에 왔다. 일본 음식과 술 PR을 3년간 한 후 서울에 광고 제작 회사 'PLUX'를 창업하였다. 주한 일본계 기업에 한국에 대한 PR과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의 인바운드, 그리고 한국 기업과 지자체의 일본 대상 광고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News Week Japan Web의 한국 뉴스를 집필하고 있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연구실장

김선배 실장은 현재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연구실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 학사, 경제지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3년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자문위원과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산업 분과 전문위원직을 역임하였다. 또한 2016년에 충남 경제비전 2030자문위원직을 역임하였다.



귀루이동

하북성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부연구원

귀루이동은 하북성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에서 부연구원이다. 하북과기대학에서 자동화 학사를, 대련이공대학에서 관리과학 및 공전 석사를,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기술경제 및 관리 전공 박사를 취득하였다. 2015년 지역창신 구동 발전 경로 연구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2016년 하북성사회과학원에서 우수성과 1등상을 수상했다.



한메이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한메이는 2017년 9월부터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한메이 사무차장은 중국 중경대학교 졸업 후 1998년 중국 외교부에 합류했다. 한메이 사무차장은 중국 외교부에서 주요지역문제과 고문 및 아시아국 한반도사무 부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주영 중국대사관 (2009~2013년)과 주태국 중국대사관 (2001~2005년)에서 근무했다.



English



Program

DATE	TIME	CONTENT	
11. 1 (THU)	09:00~09:30 (30')	Registration	
	09:30~10:10 (40') Sabi Hall A/B	Opening Ceremony & Keynote Speech	Opening remarks: Seung-jo YANG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Welcoming remarks: Jae-pyo HONG 1st Deputy Chairman of Chungcheongnam-do Council Jung-hyun PARK Leader of Buyeo County Congratulatory remarks: Yasumasa NAGAMINE Ambassador of Japan to the R.O.K Keynote Speaker: Chung-in MOON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Special Advisor to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pecial Session】 10:10~11:40 (90') Sabi Hall A/B	Outlook for Establishing Peace in the Pan-Yellow Sea Region in the Context of Thawing Inter-Korean Relations	Moderator: Myung-hwan YU Chairman, Board of Directors of Sejong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Keynote presenter: Seung-jo YANG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Discussants: Sung-hwan KIM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CHEN Shaochun Consulate General of Chinese Embassy in Korea
	11:40~13:00 (80') Dalsol Room	Official Luncheon <Host: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Luncheon remarks: Hwang YOUN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Toast : Ro-myung GONG Chairman, East Asia Foundation,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Concurrent Session 1】 13:00~14:30 (90')	[1-A]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a Low-Birthrate and an Aging Society Sabi Hall A	Moderator: Ku-chong CHUNG Advisor, Center for Japanese Studies of DongSeo University/Representative, Korea-China-Japan Cultural Exchange Forum Presenters: Young-ja CHOI Co-Representative, Chungnam Women Forum Kiyoshi ARIMOTO Deputy Mayor of Nagi Town, Okayama Prefecture Tomomi KANEDA Head of General Affairs Division, Nagi Town, Okayama Prefecture Discussant: Gi-cha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Kunjang University
		[1-B] Plans for Korea-China Undersea Tunnel: Explaining Why Chungnam Province Has to Be a Starting Point of The Tunnel Sabi Hall B	Moderator: Hee-jeong KANG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 Presenters: Sang-hwan KIM Professor, Hoseo University JIN Fengjun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Geography and Regional Studies, Institute of Geographic 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Research, CAS Discussants: In-sung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LIU Rui Associate Dean, School of Economics, Renmin University of China
	14:30~14:50 (20')	Break	

DATE	TIME	CONTENT	
11. 1 (THU)	【Concurrent Session 2】 14:50~16:20 (90')	[2-A] Case Studies of Public Diplomacy on the Local Governmental Level and Its Development Solutions Sabi Hall A	Moderator: Jae-Yeong HUH President of Chungnam State University Presenters: Seong-woo YI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Won-pyo HONG Senior Researcher, Dept. of Future Strategy Research, Chungnam Institute Katusya KOSEKI Director of Shizuoka Seoul Office Yasushi YAMAMOTO Deputy Secretary-General,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Discussants: Sun-Joung YOO Head, Economy & Environment Bureau, Asan-si Kang-hak LEE Officer of Planning & Budget Bureau, Dangjin-si Ki-Hyun KIM Offic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Seoul-si YANG Hongpeng Vice Chief of Heilongjiang Foreign Affairs Office Hyeong-soo KIM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2-B] Trilateral (Korea-China-Japan) Think-Tank Roundtable Sabi Hall B	Moderator: Hwang YOUN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Presenters: Young-hyun KWON Vice Director of Chungnam Institute Sun-ki KIM President of Jeonbuk Institute ZHANG Shucun President, Shandong Provincial Academy of Social Sciences YAN Tingbiao Research Professor, Finance and Trade Institute of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s Masaru SHINAGAWA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aga University
	16:20~16:40 (20')	Break	
	【Concurrent Session 3】 16:40~18:10 (90')	[3-A]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Marine Resources in the Yellow Sea Region Sabi Hall A	Moderator: Woong-Seo KIM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Presenters: Su-am KIM Professor Emeritu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nd President of NPAFC GUO Yinfeng Manager of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United Nations Office of Project Service Masashi KIYOTA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Fisheries and Environmental Sciences, Nagasaki University Discussant: Myung-beom CHOI Director of National Marine Environment Education Center,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3-B] Vitalizing Trilateral Business Cooperation and Investment – With a Focus on Small-Medium Businesses within Chungcheongnam-do Province Sabi Hall B	Moderator: Kyoung-ho KO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Chungcheongnam-do Economic Promotion Agency Presenters: Sun-bae KIM Director of Regional Industry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 & Trade GUO Ruidong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Finance and Trade Institute of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s HAN Mei Deputy Secretary-General,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Kazuoshi SASAKI Director of Advertising Agency, PLUX
	18:10~20:00 (110') Dalsol Room	Official Dinner <Host: Vice Governor of Culture & Sports, Chungcheongnam-do>	



Opening remarks



Good morning, honorable and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am Yang Seung-jo, the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of the Republic of Korea.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holding the 4th Pan-Yellow Sea Forum for the formation of a peaceful Asian communit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experts and attendants from home and abroad who are visiting Chungcheongnam-do for this forum on behalf of the province's 2.2 million resident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presenters and panelists, and especially to professor Moon Chung-in, the Special Adviser to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for his keynote address at this forum.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warmest greetings to the First Vice-Chairman of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the Governor of Buyeo County, and the Japanese Ambassador to Korea.

This year's forum, which is the fourth occasion that the forum is taking place, is held under the theme "Towards an Era of Mutuality and Prosperity in the Pan-Yellow Sea Region". I hope that this forum will be a very meaningful meeting to review the challenges and tasks faced by the Pan-Yellow Sea Region and to think about the future of this region at the level of municipalities.

Honorable and distinguished guests,
Now, the era of Pan-Yellow Sea Region is standing before us as a door to a new era. We must open this door and walk vigorously toward the age of mutual growth and prosperity. The three countries in the Pan-Yellow Sea, Korea, China and Japan are already leading the world in terms of markets and economy. The three nations account for 2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25 percent of world gross product, and 20 percent of the world's trade volume. These figures are an indicator showing how significant the three countries' roles are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y. In particular, Korea, China, and Japan have shared culture and tradition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ages. Geographical adjacency, historical relationships, and cultural commonalities are the strength shared by the three countries. They also show how Korea, China and Japan are right for each other as partners for mutual growth and prosperity. This is the reason why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in the era of the Pan-Yellow Sea. The significance of today's Fourth Pan-Yellow Sea Forum also is embedded in this reality and aspiration. For these reasons, I expect that this forum will reaffirm the importance of Korea-China-Japan relationships and bring about intensiv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here are two major issues that the Pan-Yellow Sea Region share today. The first is to find ways to establish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e long journey for this has already begun. Following this year's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historic inter 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were held in success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bilateral or trilateral talks among related countries including the two Koreas, China, Japan, the US and Russia will be held within this year. This implies that the journey towards a new world of peace and prosperity has newly begun for the three countries within the Pan-Yellow Sea Region. In this sense, I expect that the special session of this forum, which is held under the theme "Outlook for Establishing Peace in the Pan-Yellow Sea Region in the Context of Thawing Inter-Korean Relations," will promote intense discussions on this issue. The second issue is to find ways to cooperate in overcoming low birthrates and the aging society; protecting and managing fishery resources; and revitalizing investment cooperation among enterprises.



These are important issues that require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within the Pan-Yellow Sea Region. Discussions on these issues have a great significance because they will enable us to plan how to build peace and a peaceful community in the Pan-Yellow Sea Region; how to exchange and cooperate among local governments; and how to establish a global network. In this respect, I hope that insightful and detailed and cooperative measures will be discussed in the three main sessions of this forum, that is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a Low 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Trilateral [Korea-China-Japan] Think Tank Roundtable",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Marine Resources the Yellow Sea Region," and the session "Vitalizing Trilateral Business Cooperation and Investment-Focus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in Chungcheongnam-do".

Honoured guests,

Currently, the three countries in the Pan-Yellow Sea Region are facing the common problems of low birthrates and the aging society. In Korea, the three problems of low birthrates, aging society, and social polarization have deepened in recent years. So, concerns are growing for the future existence of some regions and the whole country. The statistics released by n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clearly show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quite a big crisis now. The number of births per year in South Korea was one million in the 1970s. However, this has decreased to 350,000 at the end of last year, with a national birth rate of 1.05 children per woman. It is predicted that if the current national birthrate continues,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will decrease to 24.68 million by 2100, and 330,000 by 2500.

Meanwhile, the aging rate of Chungcheongnam-do has already reached 17.1 percent, and the aging rate of 10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Gongju and Boryeong in the province exceed 20 percent. These areas have already entered the super-aged society phase. The problem is staring us in the face now, not a crisis to come in the future, but an impending one. This is why I have been trying to find a solution for this problem since I took office as the 38th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in July of this year.

I would like to create a leading model to overcome this crisi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 will make Chungcheongnam-do the welfare capital of South Korea where no one is left behind and will take the lead in building a happier future for South Korea. Young people will not avoid childbirth or marriage due to worries about their future and the senior citizens who devoted themselves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and the country will not be alienated from or forgotten by society. And no one will be frustrated by a sense of deprivation due to social polarization. This is Chungcheongnam-do that I am dreaming of. In this sense, I hope that today's forum will present insights to Chungcheongnam-do in its journey to achieve these goals. In addition, I hope that this forum will be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seek solutions for common issues in the three countries and to further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them.

Lastly, I would like to thank all those who are attending this forum once again. I also thank the employees of the ChungNam Institute, the East Asia Foundation, and Chungcheongnam-do for their efforts in preparing this event. I wish you the best of health and good luck in your future.

Thank you.

November 1, 2018

Yang Seung-jo,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Welcoming remarks



Greetings.

My name is Ryou Byong Kuk, Chairman of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As the autumn sunshine creates vibrant colors in the fields, the 4th Pan-Yellow Sea Forum is held with the theme of “Toward the Age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I am delighted that this year’s Pan-Yellow Sea Forum is held in Buyeo-gun, which was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is the center of the culture of Baekje. On behalf of the 2.2 million people of Chungcheongnam-do,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welcome to all of you.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Governor Yang Seung-jo, East Asia Foundation Chairman Gong Ro-myung, Chungnam Institute President Yoon Hwang, and other officials for your enthusiasm and efforts in preparing this meaningful forum.

Ladies and Gentlemen,

The reason why we focus on the “Pan-Yellow Sea” is that it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future of our region of Chungcheongnam-do. Moreover, the future of Asia centered around Northeast Asia depends on this region. In particular, the three nations in Northeast Asia, Korea, China, and Japan, have long been competing against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s you all know well, the Korean Peninsula took its first step toward peace and co-prosperity a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nounce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in September this year. At a time of period when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re intricately entangled between the two Koreas, we have to utilize this opportunity step as a starting point to build a foundation to stand as a central nation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we should become a leader in creating the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 believe it is deeply meaningful that the local governments in East Asia are pursuing measures to promote friendship and contemplating sustainable future growth for mutual prosperity. In particular, this forum will cover various agendas, includ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Overcom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and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in the Yellow Sea Area.” This platform will serve 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deliberate on and discuss the problems facing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China, and Japan.

In this context, these nations should place emphasis on collabo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and find measures to prosper together while strengthening cooperation as each nation has strengths and shortcomings in different areas.

I look forward to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in making this forum successful. I extend my congratulations once again on the opening of the 4th Pan-Yellow Sea Forum. I wish you in good health and spirits. Thank you.

November 1, 2018

Ryou Byong Kuk, Chairman of Chungcheongnam-do Council



Welcoming remarks

Greetings!

My name is Park Jung-hyun, and I am the Leader of Buyeo County.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welcome to all of our domestic and foreign guests on their visit to Buyeo, a city of world heritages where history and culture exist side by side.

I would also like to offer my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4th Pan-Yellow Sea Forum,' being held with the theme of 'Age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of the Pan-Yellow Sea Reg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Yang Seung-jo and everyone else who has worked so hard to prepare for this meaningful event.

Buyeo is the old capital of the Baekje Kingdom, and it is a city with a rich international history. Baekje was a cultural powerhouse and maritime power, and it was influenced by China and later passed on high levels of culture and technology to Asuka, Japan. Perhaps most significantly, the aesthetic concept of Baekje, which can be summed up with the phrase 'simple but not shabby, splendid but not extravagant,' even today remains the proud aesthetic heritage of Koreans.

I am very happy that this meaningful event joined by exper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is being held here in Buyeo, a historically significant area for trade and cultural exchange via the Yellow Sea.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rade in the pan-Yellow Sea belt, the impact of such trade in the economy has also grown rapidly. We are now at a juncture, at which we shoul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future-oriented industries us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ocal resources in logistics, industry, distribution and tourism, while also searching for ways of mutual growth through continuous exchang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conflict and competition.

I hope that this forum will become a place for communica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furthermore, contribute not only to peace in Asia, but also to a path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through friendly cooperation.

Fin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best wishes for good health and spirits of everyone here today. Thank you.

November 1, 2018

Leader of Buyeo County Park Jung-hyun



Congratulatory remarks



I would like to first extend my warmest welcome to the experts from China and Japan who are visiting the Republic of Korea to attend the Pan-Yellow Sea Forum. I would also like to welcome members from central agencies and domestic experts who are also visiting Chungnam.

In this fall season we can enjoy some of the best weather of the entire year and the mood and atmo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point in time is extremely bright and hopeful with the recent momentous steps toward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all of you on the occasion of the opening of the 4th Pan-Yellow Sea Forum under the theme 'Era of Pan-Yellow Sea Coexistence and Prosperity' and which is being held in Chungcheongnam-do at this propitious moment in time .

There is no economic growth without peace and I am convinced that this applies both domestically and in international relations. Putting an end to opposition and conflict in Korea, the only remaining divided nation in the world,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is critical not only for the survival of our race, but also for the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The major sessions for this year's forum are wide-ranging and include such topics as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Pan-Yellow Sea area, overcoming low birthrates and aging of society, and pursuing an underwater tunnel between Korea and China. I believe that they are great topics to discuss by the Pan-Yellow Sea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Chungcheongnam-do moved its provincial office to Naepo and has been engaging in the formul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ve policies to become a marine powerhouse. This recent period of prolonged global sluggish economic growth has been impacting the Korean economy severely , and amidst such circumstances, China's high growth rate should be viewed as an opportunity and means to create a virtuous cycle to boost the domestic economy. With Japan, we must overcome past difficulties and rancor and restore relations so that we can together for our joint benefit play a greater role in the global economy.

We hope that through this forum, there will be meaningful discussions and exchanges and that cooperation among our nations will improve. I believe that the exper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here today should not only discuss specific themes, but also play the role of evangelists in promoting diplomacy and building partnerships between our three countries.

I hope that Korea, China and Japan will act together in a spirit of cooperation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stablishment of world peace and that the economies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Pan-Yellow Sea belt will be a leader of global trends. I would like to thank those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o are present here today and also thank Chungcheongnam-do, the East Asia Foundation, and the Chungnam Institute for their efforts in making this event come to pass.

It is my fervent hope and request that Korea, China and Japan join hands together to create an age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Thank you.

November 1, 2018

National Assemblyman Eoh Kiy-ku

Keynote Speech

New Era of Peace and Mutuality and Prosperity of the Pan-Yellow Sea

Chung-in MOON |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Special Advisor to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 would like to convey my congratulations to Governor Yang Seung-jo and all distinguished guests for hosting the 4th Pan-Yellow Sea Forum.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Pan-Yellow Sea Forum has been providing a platform for both creative and practical discussions in regard to the development and future vision of Chungcheongnam-do and the Pan-Yellow Sea reg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Governor Yang Seung-jo and all other involved officials for generously preparing another Pan-Yellow Sea Forum this year.

In retrospect, the year 2017 was literally a year of "suffocation." As President Moon was sworn into office on the 9th of May, his administration had to face an intense security situation. The U.S. strongly responded as North Korea test-fired a total of 15 ballistic missiles and even conducted 6th nuclear test throughout last year. Going beyond applying maximum pressure and sanctions, the U.S. expressed the possibilities of 'real military actions,' like a preventive war, preemptive strike, and "bloody nose." It was a dangerous year. Moreover,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with respect to the THAAD deployment reflected the salience of their ongoing hegemonic rivalry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suffered from the ensuing economic sanctions from China and the after-effect still remains. The Korean society was heavily polarized over the security issues at that time and it made everything wors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as a turning point. The 3rd inter-Korean summit was held on the 27th of April and led to the adop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n, the U.S.-North Korea summit was held on the 12th of June, which served as a momentum for opening a new horiz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Secretary Pompeo's third visit to North Korea failed, an atmosphere of turbulence and uncertainty returned temporarily. However, the Inter-Korean summit from September 18 to 20 in Pyongyang was able to break the U.S.-North Korea deadlock and now the spirit of the denuclearization of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viving.

The 1st Inter-Korean Summit in 2018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Panmunjom used to be a symbol of a divided Korean Peninsula, war, and tragedy, but 12 hours there gave birth to a miracle of peace that nobody had expected. Both President Moon Jae-in and Chairman Kim Jong-un adopted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promulgate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new age of peace has begun" to 80 million Koreans and to the entire world. As North Korea's Kim Yo-jong was witnessing the signing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she said, "I cannot believe this is real." Similar to her statement,

everything was like watching a surrealistic movie. This becomes even more so when looking back at the year 2017 in which all of us were engulfed by a sense of crisis and a fear of war.

As it is summarized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logan, 'Peace, a New Start,' the two Koreas started a perilous journey of ending war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regime. The Panmunjom Summit is an extension of the first and second inter-Korean summits in 2000 and 2007. Most importantly, the Panmunjom Declaration includes meaningful measures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ease military tensions, build trust and pursue disarmament. It also carries substantial content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s peace regime and denuclearization.

The Panmunjom Summit should be regarded as highly valuable because it produced numerous agreements with respect to normaliz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two leaders agreed that "the two Koreas will hold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at various levels, along with high-level meetings, as soon as possible to prepare for implementation measures." In this context, the two Koreas also agreed to make contacts and exchanges at all levels of society more active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spirit of Korean reconciliation and unity. Furthermore, in order to reduce military tensions, the two leaders agreed to stop hostile activities and to transform the DMZ and NLL into peace zones. Finally, the two leaders promised to adopt a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before the end of this year and to give an impetus to building a peace regime. At the same time, they agreed to work toward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Panmunjom Summit stands out in various aspects. Above all, the final objective laid out in the Summit is bold and unprecedented. The two leaders' determination to end a 70-year-old war and to write the history of peace was beyond anyone's imagination. This changed our way of thinking because we have been approaching these issues up until now from a gradual, mid- to long-term perspective. Reducing military tensions, declaring the end of war, and agreeing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are important achievements because all of them are unprecedented.

The 1st Ever U.S.-North Korea Summit and the June 12th Singapore Declaration

Of course, there are concerns regarding the U.S.-North Korea summit. Some criticize that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is absent. However, it is not true.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the U.S. consider 'complete denuclearization' to be CVID.

Additionally, many different concerns came into being when President Trump announced the stopping of joint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during a press conference. These concerns point out that halting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could weaken not only the combat readiness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but also the alliance itself over time.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will be temporary. It neither reduces nor abrogates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Therefore, it will not have much influence on the alliance. In fact, the "Team Spirit" exercises have a record of being stopped for four times in 1992, 1994, 1995, and 1996. President Trump also has been emphasizing that this is only a provisional measure. What this means is that everything will continue as usual if North Korea takes a provocative stance.

Despite the Singapore Agreement, the U.S. and North Korea were not able to break their impasse.

When Secretary Pompeo visited Pyongyang on July 9th and pressed for CVID and the 'declaration after reporting and verification' sequence, North Korea responded negatively. North Korea argued that it cannot report its lis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first in the absence of mutual trust. Instead, North Korea stressed that both reporting and verification will be possible only after declaring the end of war, confirming non-aggressive positions and building trust. Due to the difficulty of handling this problem, Secretary Pompeo's fourth visit to Pyongyang planned for early September was canceled.

The September 19th Pyongyang Declar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cent inter-Korean summit held from September 18th to 20th in Pyongyang resolved the gridlock. I had opportunities to attend all three of the inter-Korean summits on June 2000, October 2007, and September 2018. Although the two previous summits were meaningful in their own ways, this third inter-Korean summit was different in many ways. President Moon Jae-in's speech at the Mass Games in front of 150,000 Pyongyang citizens and the scene of the two leaders reflecting on the future of the Korean people, as well as on peace and unification, at Janggunbong of Mount Baekdu were touching.

Compared with the first and second inter-Korean summits, the recent summit was also different in terms of the significance of its achievements. Whereas the first June 15th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was a general agreement, the second October 4th Declaration was a detailed agreement. However, the September 19th Pyongyang Declaration contains implementation measures.

The most noticeable point in the Pyongyang Declaration is Article 1 in which both President Moon and Chairman Kim "agreed to expand the cessation of military hostility in regions of confrontation such as the DMZ into the substantial removal of the danger of war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a fundamental resolution of the hostile relations." It revived the spirit of non-aggression stipulated in the 1992 South-North Basic Agreement. Moreover, due to six Articles and 19 Clauses associated with trust-building measures in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the Pyongyang Declaration appears more detailed and firm. The Agreement includes ceasing all hostile activities through sea, air and land, turning the DMZ and NLL into a peace zone, building joint fishing areas, military guarantees to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mutual contact and visits, and organizing a joint military committee. This is why it was possible to confidently say the following: "An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gun. The two Koreas agreed to get rid of the dangers sprea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that could spark a war."

Some denounce that the agreement leads to unilateral disarmament without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ut their claim is unfounded. The high likelihoods of the conventional and further escalated conflicts in the DMZ and West Sea could trigger a nuclear warfare. In this regard, the agreement can prevent these conflicts and thu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already constitutes half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ticle 5 in the Pyongyang Declaration regarding the denuclearization is unprecedented as

well. North Korea had been refusing to consult with South Korea by arguing tha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belongs to the realm of U.S.-North Korea bilateral relations. This was reflected in the April 27th Panmunjom Declaration, but in the Pyongyang Declaration, North Korea broke out of its inertia and promised to dismantle its Tongchang-ri missile engine test and launching site permanent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experts from the relevant countries.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promised to take additional actions such as permanently dismantling its Yongbyon nuclear facility if the U.S. takes corresponding actions based on the June 12th Singapore Declaration.

In fact, it is the first time that North Korea mentioned 'the permanent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in 1962,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has been a centerpiece of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t contains a graphite-moderated reactor, fuel manufacturing plant, and radiochemical reprocessing facility. It also has a centrifuge that can enrich natural uranium into highly enriched uranium (HEU). Therefore, Dr. Siegfried Hecker at Stanford University continues to emphasize that such unprecedented proposal is something that the U.S. cannot refuse. Reportedly, Article 5 have broken the impasse and made Secretary Pompeo's fourth visit to Pyongyang possible.

Although there is a provision of "if the conditions are met" in Article 2 of the Pyongyang Declaration, they agreed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normaliz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m project, and hold consultations on the formation of the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East Sea joint special tourism zone. They also agreed to hold a groundbreaking ceremony within this year for beginning the project of connecting rails and roads. It looks like both Article 3 that stipulates the opening of a permanent facility for family reunions and Article 4 that stipulates increas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culture and sports, along with holding commemorating events for the Oct 4 Declaration and 100th anniversary of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Day, will proceed without any interruptions because they do not violate the U.N. sanctions. And, Chairman Kim Jong-un's reciprocal visit to Seoul is another noticeable point.

The 2018 Pyongyang Summit was a success in terms of its formality and contents. Of course, there are some constraint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inter-Korean matters are dependent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on U.S.-North Korea relations. However, trust between the two Korean leaders are sufficient enough that President Moon Jae-in will be able to break any upcoming deadloc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to continue driving the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e Implications of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Pan-Yellow Sea Region and Chungcheongnam-do

President Moon Jae-in said in his speech during the celebration of the 73rd Liberation Day an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hat "although political unification is still far away, building a single economic community first by promoting peace and travell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Koreas freely will be a true liberation." Furthermore, the two Koreas agreed to pursue substantial measures in order to foster further exchanges and cooperation based

on mutual benefit and shared prosperity, and to develop the nation's economy in a balanced manner. This is the context in which both agreed to connect East and West Sea rails and roads, to normaliz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m project, and to hold consultations on the formation of the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East Sea joint special tourism zone. This year, the structure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gradually forming.

I believe that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September 19th and its entailing effect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two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Pan-Yellow Sea region and Chungcheongnam-do. First, it has an implication for the peace initiative that Chungcheongnam-do has been pursuing in the Pan-Yellow Sea region. Secondly, it has an implication for Chungcheongnam-do's own development and prosperity.

Try to remember what happened in the West Sea in November 2010.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along with the Cheonan sinking, changed the Yellow Sea region into a maritime war zone. As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had risen in the West Sea, the U.S. carrier group led by the aircraft carrier USS George Washington moved northward up to Gyeokryeolbi Island. It was unprecedented. As a response, China also operated its navy under emergency and even conducted a joint military exercise with Russia in the Yellow Sea. The silent West Sea was engulfed by the hegemonic rivalry. Everything was started by the inter-Korean tension.

Now, we do not have to worry. In Article 3 of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South and North agreed to turn the area around the NLL into a maritime peace zone as forming the model of inter-Korean joint fishery. In addition to this, they also agreed to cease all live-fire and maritime maneuver exercises within the zone north of Deokjeok-do and south of Cho-do in the West Sea and to install covers on the barrels of coastal artilleries and ship guns and close all gunports within the zone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al maritim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long as the agreement has pursued,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military conflict in West sea will dramatically be reduced. Moreover, the room for great powers to intervene decreases. This is an inspiring phenomenon for the future of Chungcheongnam-do. This is because it guarantees the peace on the Pan-Yellow Sea region as the space for Chungcheongnam-do's survival and prosperity.

These changes have a huge impact on the prosperity of Chungcheongnam-do and the West Sea area. The Pyongyang Declaration appears in a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planned for. Originally, a new economic map by the Moon administration consisted three economic belts; the West Coast Industrial,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Belt linking from Mokpo, Chungnam and metropolitan all the way to Gaesong, Shin eui ju and China, the East Sea Energy and Resources Belt linking from Busan, East sea area, through Wonsan, Cheongjin, Najin to Russia, and the DMZ Environment and Tourism Belt connecting east and west, forming an H economic belt on the Korean Peninsula, ultimately achieving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 agreement has made in the Pyongyang Declaraion, which implements the construction of West Sea rails and roads, normalization of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m project, and the forming of a West Coast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nd an East Coast Joint Special Tourism Zone within this year. Considering the current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this agreement would be challenging to be carried out before North Korea's decisive and concrete moves towards denuclearization. Even though economic cooperation may take some time, the agreement would have a positive ripple effect on the economy of Chungcheongnam-do and prosperity of the Pan-Yellow Sea region.

Some people may have some skeptical views about substantial financial gains to Chungcheongnam-do brought by improvements of inter-Korean relations. Actually, they have a point. The West Economic Belt could include renovation of Gyeongui Railroad, construction of New Gyeongui Line highway, and high-speed railroad between Seoul and Beijing based on West Coast Industrial,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Belt linking Seoul Metropolitan Area, Kaeseong Industrial Complex, Haeju, Nampo, and Shineuiju. There are also opinions of normalizing and making another Kaeseong Industrial Complex, establishing a Yellow Sea Peace Economic Zone, building a Pan-West Sea logistics network, connecting the West logistics complex network of Incheon,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Haeju to the Chinese cities. In this sense, the term 'Chungnam Passing' is not that exaggerated. Even Chungcheongnam-do is not geographically linked closely with three belts conceived by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rather than sticking to negative and passive attitude, we should prepare creative plans that come up to geo-economic changes. Building a logistics network on the Pan-West Sea economic belt throughout Chungcheongnam-do placing Taean Peninsula at the center as well as establish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luster centering on Chungnam, Daejeon, and Sejong could be considered, on which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can be worked. Also, it would be an alternative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in agricultural sector with North Korea where Chungcheongnam-do has a competitive edge or to establish a Pan-Yellow Sea economic zone through logistics and manufacturing cooperation with China in connection with a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Concluding Remarks

'Peaceful Korean Peninsula without nuclear weapons' has been the long-term goal since before President Moon's election and historical inter-Korean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paved the way for this. However, writing a new history is not an easy task. A load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s are on the way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peaceful Korean peninsula. We can take a prudent and persistent attitude throughout the steps we take for our ultimate goal only if we realize this harsh reality. 'The Spr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oming very fast and we must not miss this historical and hard-earned opportunity.

I would like all citizens of Chungcheongnam-do to join the new era of peace. And, I wish you to open the door for the reciprocal and prosperous era of Chungcheongnam-do and the Pan-Yellow Sea region. I firmly believe that imagination, braveness, constant innovation and unity will bring us to the new era of peace and prosperity. Thank you very much.

Brief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Seung-jo YANG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Seung-jo Yang is the 38th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After graduating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he obtained a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Special Legal Studies at Dankoo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olicy Management. After serving as a member of the 17th, 18th, 19th, and 20th Congress, Yang was elected as the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During his time as a Congressman,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 member of the Emergency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Secretary-General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f Oil Damage in the West Sea.



Jae-pyo HONG

The First Deputy Chairman of Chungcheongnam-do Council

Jae-pyo Hong is the current First Deputy Chairman of Chungnam Provincial Assembly. He graduated from Shinsung University. He served as the Vice Chairman of Youth Committee in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Special Chairman of Chungnam-do branch of the Uri Party, member of the Special Committee of United New Democratic Party, Chairman of Chungnam-do branch of the Democratic Party, and Captain of Citizen Participation Forum during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aign. Currently, Hong is an advisor i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s well as Vice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Fine Dust of the Democratic. Hong has received a Presidential Commendation in 2006.



Jung-hyun PARK

Leader of Buyeo-gun, Chungcheongnam-do

Jung-hyun PARK is the 38th Leader of Buyeo-gun, Chungcheongnam-do. He is also currently the Deputy Spokesman fo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eviously, he served as the Director of Political Affairs, Vice President of Sports Events, as well as a Special Policy Advisor of Chungcheongnam-do. During Moon Jae In's candidacy, Park served as the Manager of the Chungcheongnam-do General Election Campaign Headquarters. After graduating from Buyeo High School, he earned a degree in Political Diplomacy at Dongguk University.



Yasumasa NAGAMINE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to the Republic of Korea

Ambassador Nagamine has served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ince 1977. He is currently the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to the Republic of Korea. Previously, Ambassador Nagamine has served as the Senior Deput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mbassador to the Netherlands, Director-Genera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Bureau and the Foreign Policy Bureau, as well as a myriad of other positions within the Ministry. He obtained his degree from University of Tokyo in 1977.



Chung-in MOON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Special Advisor to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hung-in Moon is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He is also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Krause distinguished fellow at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editor-in-chief of Global Asia, a quarterly journal in English. He was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 and served as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of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a cabinet-level post. He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 Peace Studies Association and Vic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SA) of North America. He was an advisor to various agenci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Ministry of Defens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e served as Chairman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National Intelligence Reform and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Defense Reform. Dr. Moon was a special delegate to the first (2000), second (2007) and third Inter-Korean summit (2018) which were held in Pyongyang. He is currently co-convenor of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on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PLN), Chairman of Asia Research Fund, a board member of the Pacific Century Institute and the Korea Peace Forum. He was also chairman of the Global Agenda Council on the Future of Korea of the World Economic Forum as well as a board member of the East Asia Foundation. He was a recipient of Public Policy Award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the Lixian Scholarship (Beijing University), and Pacific Leadership Fellowship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Myung-hwan YU

Chairman of Sejong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yung-hwan Yu joined Kim & Chang in 2011 after 37 years of distinguished service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cluding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from 2008 to 2010. He started his foreign service in Japan in 1976 as a young diplomat and returned as Ambassador to Japan in March 2007. He advised on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concerning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with a view to revamp bilateral relation until his departure from Japan to join President Lee Myung Bak's administration as a cabinet minister in February of 2008. Mr. Yu's experience extends across a broad range of issu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cluding traded and security issues an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n particular. He has served as Political Counselor and Deputy Chief of Mission of the Kore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in the 1980s and 1990s, and also served as Minister of the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Mr. Yu was appointed the Ambassador for Anti-Terrorism and Afghanistan Issues in 2001. He also served as the Ambassador to the State of Israel from 2002 to 2004, when he was transferred to the Philippines. He was appointed to 2nd Vice Minister in July 2005 and later, he served as 1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until December 2006. Mr. Yu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1970) and also studied at the Institute for Social Studies at The Hague, Netherlands (Diploma 1974). He was awarded the Order of Service Merit, Red Stripes in 1996 and the Grand Cross of the Order of Sikatuna in 2005 from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he was also awarded Grand Cordon of the Order of the Rising Sun in 2015.



Sung-hwan KIM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Sung-hwan KIM was a career diplomat and served a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October 2010 to March 2013. With a career spanning over 36 years, he held a number of senior diplomatic posts including the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nd Vice Minister of MOFAT. He was ROK's ambassador to Austria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Vienna and the ROK's Ambassador to Uzbekistan. He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 July, 2010. After retiring from the Foreign Service, he served as the Chair of 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and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until March 2015. Now he is working as a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at the Hanyang University and the Chairman of the Gangwon Art and Culture Foundation.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Masao Okonogi is Professor Emeritus of Keio University. He was Dean of Faculty of Law and Politics (2005-07)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Area Studies (1995-99) of Keio University. He received his B.A. (1969), M.A. (1971), and Ph.D. (1986) in political science from Keio University. He studied at Yonsei University from 1972-74. From 1981-82, he was a Fulbright Scholar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n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was a Research Professor at Kyushu University from 2011-14. He has published and edited numerous works, including The Origins of the Korean Division (2018),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2006), Postwar Develop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05), Market, State, and International Regime (2001), North Korea During Kim Jeong Il Era (1999),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Post-Cold War Era (1994), North Korea at the Crossroads (1988), International Politics During the Cold War Era (1987), and Korean War (1986).



CHEN Shaochun

Consulate General of Chinese Embassy in Korea

He is currently serving as a Consulate General at the Chinese Embassy in Korea. After graduating from Kim Il Sung University, he joined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in 1994. Since then, he has served in various positions such as secretary of the Chiense Embassy in North Korea, Asian Affairs Bureau secretary, Vice Chief of Chinese Embassy in South Korea, as well as Section Chief of Asian Affairs Bureau in the Ministry.



Hwang YOUN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e

Hwang Youn is the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in Politics from Konkuk University. He served as a researcher at the Korean National Policy University from November, 2000 to February, 2008. He also served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n 2012, 2014, and 2016,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 Studies in 2015, and a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from December 2017 to September 2018. Currently, he is serving a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Global Korean Studies in Sunmmon Univeristy, a member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and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Centennial Anniversary of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Ro-myung GONG

Chairman of the East Asia Foundation,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Former Korean Foreign Minister and the chairman of the East Asia Foundation, Ro-Myung Gong was a chair professor in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of Dongseo University in Busan, Korea, since 2007. He is also the advisor of the Korea-Japan Forum since after serving as Chairman from 2003 to 2012. He was born on February 25, 1932. He is a graduate of the Law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tudied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He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58 and served at various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of Korea, including in Washington DC, Tokyo, Canberra and Cairo. He was the Republic of Korea's Ambassador to Brazil from 1983 to 1986, Consul-General in New York (1986-89), Ambassador to the then-Soviet Union (1990-92),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IFANS) (1992-93), Ambassador to Japan (1993-94), and becam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rom December 1994 to November 1996. After retiring from government,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Unification in 1997. In 1992, he was also the representative of the 6th, 7th, and 8th round of high-level inter-Korean talks and chairman of South Korea for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He was chairman of the 2010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Bid Committee (1992-93), chair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Seoul (1997-2004) and of Hallym University in Chuncheon (2004-07), and chairman of the Sejong Foundation/Sejong Institute (2008-11).



Ku-chong CHUNG

Chairman of The Korea-Japan Culture
Exchange Council and Professor Emeritus of
DongSeo University

Ku-chong CHUNG is Chairman of The Korea-Japan Culture Exchange Council and Professor Emeritus of DongSeo University. Chung received his BA and MA from Yonsei University and finished a doctorate course in political science at Keio University in 1995. He joined the Dong-A Ilbo in 1967 and over the years he had served as the paper's resident correspondent to Japan, national/city editor, Tokyo bureau chief, managing editor and executive director. He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Japan Law and Politics Studies Association and had been a director of the Korea-Japan Forum's Korean Steering Committee since 2003 and served as a president of Korea-Japan Future Forum since 2005, and adviser of CEO & President of Donga.com since 2009.



Il Hwan KO

Director of Health and Welfare Bureau,
Chungcheongnam-do

Il-hwan Ko is a Director of Health and Welfare Bureau in Chungcheongnam-do since 2017. He has served as an Expert Advisor of Taeang-gun Council (2005-6), a Director of Climate Environment Policy Division (2013), Business Trade Exchange Division (2015-2016), Competency Development Division in Agricultural Support Bureau (2013), Commercial Exchange Division in Economy and Commerce Bureau (2015-2016), and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in Environmental Bureau (2016-2017).



Young-ja CHOI

Co-respresentative of Chungnam Women
Forum

Young-ja CHOI is co-representative of the Chungnam Women Forum. She majored in Social Welfare at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Management at Dankook University. She has served as a member of long-term care rating committee, a policy advisor for Dangjin City, and a member of Investment Assessment Team. Choi was rewarded Equally Cultural Families Award from Chungcheongnam-do in 2009 and an Appreciation Plaqu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2017.



Kiyoshi ARIMOTO

Deputy Mayor of Nagi Town

Kiyoshi Arimoto has been the Nagi Town Deputy Mayor since 2015. He entered Nagi Town Hall Office in 1974 and has served as a Director of Health and Welfare section, a Director of Regional Inclusive Support Center, a General Affairs Section Manager, and a Secretary General of the Election Committee.



Tomomi KANEDA

Head of General Affairs Division of Nagi Town

Tomomi KANEDA is the Head of Nagi Town General Affairs Division. He entered Nagi Town Hall Office in 1992 and has served as an Industry Promotion Section Manager and an Information Finance Section Manager.



Gi-chang KIM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at Gunjang University
The Director of Hope Songsan Rural Elderly Welfare Center

Gi-chang KIM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at Gunjang University, as well as the director of Hope Songsan Rural Elderly Welfare Center. After receiving his master's degree in Social Welfare Studies at Suncheonhyang University, he earned his doctoral degree at Dankook University for Health and Welfare Studies. He has served as directors of several welfare centers on the local and regional level. He was awarded Asan Welfare Contribution Award in 2008.



Hee-jeong KANG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in Hanbat University

Hee-jeong KANG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in Hanbat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Renmin University of China. He served as a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Chinese Economics & Management and a Director a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in Hanbat University. He has served as an Advisor of International Affairs for Chungcheongnam-do.



Sang-hwa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Hoseo University

Professor KIM Sang-Hwan is a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the Hoseo University. Professor Kim received his undergraduate degree in Civil Engineering at Inha University in 1982. He obtained his master's degree in Geotechnical Engineering from the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 in Bangkok in 1985. He is also a graduate of the Oxford University (UK), where he obtained a doctoral degree in Civil Engineering (Tunnel) in 1996. His research focus includes tunnel engineering, soil dynamics, foundation engineering and modeling of soil-structure interaction. Professor Kim has published more than 150 research papers as of date. He also works on applied geotechnical biomechanics and forensic geotechnical engineering. Professor Kim is a professional Engineer (PE) in geotechnical engineering in Korea, and has had more than 20 years of domestic and overseas experiences in various large projects around the world as geotechnical/tunnel engineer and project manager. He is currently the Past President of the Korean Tunne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KTA), and a member of committees of several international associations and societies relevant to Civil Engineering, especially relating to tunnel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He is also involved actively in several government projects as a technical committee member.



JIN Fengjun

Deputy Director of Key laboratory of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ing, Chinese Academy of Sciences.

Professor Ji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Geography at Peking University in 1983. His specialization is economic geography and urban planning. In 1989, he received his master degree in geography from the Graduate School of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as well as a doctoral degree in economics from Renmin University of China in 2006. Professor Jin also carried out cooperative studies in Manitoba University, Canada in 1996,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in 2002, and Harvard University in 2012. His research focuses on regional infrastructure system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and urban planning. He has served several roles, such as Vice Director of Professional Committee of Economic Geography for Geographical Society of China, Vice Director of Professional Committee of Land Planning for Regional Sciences Society of China, Member of Transportation Systems Engineering Society of China, and Committee Member of Research Committee of China Land Economics.



In-sung PARK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In-sung PARK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at Hansung University in Korea. Previously, he has worked a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Chungnam Research Institute in Korea from September 2014 to March 2017. He was also a Professor at City Development Management Department and Land Resource Management Department of Zhejiang University in China, Hangzhou from September 2004 to August 2014. Additionally, Professor Park has worked a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KRIHS) during March 1983 to August 2004.



LIU Rui

Associate Dean of the School of Economics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Professor Liu is currently serves as the President of China Macroeconomic Management Education Association, as well as the Associate Dean of the School of Economics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RUC). Professor Liu received is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RUC as well. He was a Visiting Scholar at Chines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Taiwan in 2008, and a Visiting Schola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International Scholar Exchange Fellowship of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in 2001-2002. His extensive work and publications focuses on topic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cy in China. His most recent study, The role of economic adjustment in keeping endless and stable economic growth in China was granted by the China Foundation for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Jae-Yeong HUH

President of Chungnam State University

Jae-Yeong HUH is the President of Chungnam State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Engineering from Osaka University. He wa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 Daejeon University from 1989-2017. He served as a president of Daejeon and Chungcheong at Korea Water Resource Association. He held positions of chairman and director of Chungnam Geumgang Vision Planning Committee, Korea Institute of Disaster & Safety, Daejeon Environment Movement Coalition, Mutual Cooperation Committee in Korea Resource Corporation, and Integrated Water Mangement Vision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ong-woo YI

Jeju Peace Institute

Seong-woo YI is a research fellow of the Jeju Peace Institute. He received his Ph. D.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University of North Texas in Denton, Texas. He worked at the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Dankook University, as a research professor from 2005 to 2007. His specialty is on the interstate cooperation with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He worked as a referee for th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from 2004 to 2006 and also for th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from 2012. In addition, he is currently working for a number of Korean academic journals such as the Journal of Korea Political Science and the Journal of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 He also served as a committee member of the academic board for Korean Political Science in 2011. He published Why Do Nation-States Cooperate under Anarchy? Domestic Factors for Interstate Cooperation in English with German Publication Company, Verlag Dr. Muller (VDM) in 2011. He also published World Peace Index Studies in Korean, which was awarded a prize of excellent book by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of Korea in 2010. He has also published a number of articles on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on reputable Korean academic journals.



Won-pyo HONG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Future
Strategy Research, Chungnam Institute

Won-pyo HONG is an expert on future strategy research. He obtained his Ph.D. of Human Geography at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Sciences, Peking University, with a master's degree i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been engaged in future strategy research for seven years in Seoul Institute and Chungnam Institute. His main research topics includes future research, globalization strategy and energy strategy focusing on hydrogen energy. Concerning future research, Dr. Hong served as a research project manager of Future of Chungnam 2040, which came into the publication of two books in 2016 and 2018 respectively. In the field of globalization of Chungnam Province, he has produced the research reports on 'Local Diplomacy 3.0 Strategy' (2016), 'Globalization Strategy of Chungnam Province'(2017) and currently on 'Pan-Yellow Sea Initiative and Action Plan of Chungnam Province'(2018). With regard to hydrogen energy, he has served as a member of special committee on Hydrogen Energy of Chungnam Province since 2016 also with research interests in rechargeable battery industry.

Katsuya KOSEKI

Chief of Shizuoka Office in Seoul

Katsuya KOSEKI is the chief of Shizuoka Office in Seoul. He majored in Inter-national Affairs at University of Shizuoka. He has worked in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in the Ministry of Industry, i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and in the Bureau of Regional Foreign Affairs.



Kang-hak LEE

Officer of Planning & Budget Bureau,
Dangjin-si

Kang-hak LEE is Officer of Planning & Budget Bureau, Dangjin-si.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Chungnam University. He served as an Expert Advisor for Dangjin City Council, a Section Chief of Business Support, and a Chief of Myeonchoen-myeon for Dangjin City.



Yasushi YAMAMOTO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Mr. YAMAMOTO is the Deputy Secretary-General of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since September 2017.

He had been posted to Japanese Embassy at Beijing, China multiple times, including his post as Minister in charge of Press & Culture (2014-2017) and as counsellor of Economic Section (2007-2010). He was Director of Regional Policy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3-2014) and served as Director in Policy Planning Office of Abduction Issue, Cabinet Secretariat (2010-2013). He was also Counsellor of Political Section in Japanese Embassy at Seoul, Korea (2005-2007).

He studied Chinese Philosophy at Tokyo University and also received a master degree in Regional Studies East Asia from Harvard University.



Ki-hyun KIM

Offic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Seoul-si

Ki-hyun KIM is Offic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Seoul-si. He studied in Public Administration at Korea University and he received his M.A. in Economic Development & Policy Analysis from Birmingham University. He has served as a Director at the Economic Policy Division of Economic Planning Headquarters, Officer at the Social Innovation Division of Seoul Innovation Bureau, and a Section Chief at the Tourism Business Division of Culture and Tourism Design Headquarters.



Sun-joung YOO

Head, Economy & Environment Bureau,
Asan-si

Sun-joung YOO is the Head of Economy & Environment Bureau of Asan-si. He holds a doctorate degree in tourism management from Soonchunhyang University and has held positions in various government bureaus in Asan such as the planning and inspection office, public sports office, policy office, public information officer, cultural tourism manager and social economy department since 1991. He has also received various honors and awards, including the National Society Development Award and the Presidential Prize for Administration Reform.



YANG Hongpeng

Vice Chief of Heilongjiang Foreign Affairs
Office

YANG Hongpeng currently serves as Vice Chief of Heilongjiang Foreign Affairs Office. Previously, he served from 2000 to 2016 as head of the Foreign Affairs and Trade Office of the People's Government Heilong after a year at Goyang City Hall in Korea.



Hyung-soo KIM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Hyung-soo KIM is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in Dankook University.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Dankook University.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he has had academic exchange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ace Studies,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and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Young-hyun KWON

Senior Researcher, Chungnam Institute

Young-hyun KWON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Chungnam Institute. He received his Ph.D. in Engineering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e has served as a Director of Cultural Tourism Research Division (2012) and a Director of Public Design Center (2015).



Sun-ki KIM

President of JEONBUK Institute

Sun Ki KIM is the Presidents of Jeonbuk Institute. He received his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as the Deputy Director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His major books include 'The Theor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Theory and Practice, The Issues of Local Autonomy, Analysis of the Quality of Life in the Local Community and Regional Gaps'.



ZHANG Shucun

The Dean of Shand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an Adjunct Professor of Shandong University

ZHANG Shucun, the Dean of Shand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an Adjunct Professor of Shandong University, was born in Tai'an City, Shandong Province on Aug 10th, 1960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of Economics from Fudan University. In October 1980, he was selected to work in the General Office of the People's Government of Shandong Province and served successively as Secretary (deputy division chief level), Division Chief and Cadre of Deputy Department Level. In July 2005, he was appointed Deputy Director of the Research Office of the People's Government of Shandong Province and in January 2014, as the inspector of General Office of the People's Government of Shandong Province. In June 2015, he was inaugurated as the Dean of Shandong Academy of Sciences. Zhang Shucun has been participating in drafting important provincial level (as well as the state level for several times) documents, reports on the work of the government and leadership speeches, and as well as presiding over researches into important provincial issues for a long time. The research projects he worked on won 30+ prizes, which include China Development Research Prize, Scientific Advancement of Shandong Province Award, Outstanding Achievement on Policy Making Consultation of Shandong Province Award, Outstanding Soft Scientific Achievement of Shandong Province Award, and more. Research projects led by Zhang Shucun has received numerous affirmative comments from the leadership. Over 10 works were published,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Evolution and Reform of Shandong Province, Applied Administration and Modern Art of Leadership, and more. Over 200 papers were published on state level or provincial level newspapers and periodicals.



YAN Tingbiao

Dean of the Finance and Trade Institute, Hebei Provincial Academy of Social Sciences

Professor YAN, born in August 1959 in Dacheng county, Hebei province, is a second grade professor of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s. He received his master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Open University of Hong Kong. As the Chief expert of Innovation Driven Development Research Center, he has mainly conducted various research in innovation development, service economy, macroeconomics. He is an expert with outstanding contributions in Hebei Province, and as well as a special allowance specialist of the State Council.



Masaru SHINAGAWA

Professor of Department of Economics, Saga University

Masaru SHINAGAWA is Professor of Department of Economics at Saga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 D in Economics from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He served as a visiting researcher a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2007 and a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Institute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rom 2008 to 2014, and as Executive Director at the Japanese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in 2016.



Woong-seo KIM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KIOST)

Woong-seo KIM received B.S. and M.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nd Ph. D.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USA. He w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KORDI) and KIOST, and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UST). His research interests are structure and function of marine ecosystem, effect of deep-sea mining on marine environment, and variation of marine ecosystem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He held the position of the director of IMMS (International Marine Mineral Society) and the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of 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also served as a vice president and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for 4 years.



Su-am KIM

Professor Emeritu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u-am KIM is Professor Emeritus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B.S. and M.S. degree in Oceanogra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Ph.D in Fishery Oceanography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e finished his post-Doctoral at the Alaska Fisheries Science Center in 1989. He has worked as a researcher at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from 1989 to 2000 and had been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Marine Biology 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rom 2000 to 2017. Currently, he is a fellow at the Kore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esident of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GUO Yinfeng

Chief Technical Adviser and Manager of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of UNOPS

Mr. Yinfeng GUO, a Chinese national born on February 2, 1966, serves as the Chief Technical Adviser and Manager of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of UNOPS effective as of November 1, 2016. He joined PEMSEA, a regional organization headquartered in Manila, Philippines, in 2011 as a Programme Specialist and worked his way through to become the Head of Planning and Partnership Office in 2015. He was the UNDP China Program Manager from 2006 to 2010, tasked with overseeing the growing biodiversity and international water portfolio with a total amount of 55 million US dollars in grants from GEF, European Commission and other sources. Before he joined UNDP, he was senior biodiversity specialist in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Office of Ministry of Environment Protection, China. He has 13 years of experiences working in Scientific Authority focusing on studies of trade and biodiversity in implementation of Convention on Endangered Species in Endangered Species (CITES) in Chinese Academy of Sciences. He has a master's degree in Law from Beijing University Law School and has one daughter.



Masashi KIYOTA

Professor, Nagasaki University

Masashi KIYOTA is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Fisheries and Environmental Sciences at Nagasaki University, Japan. Masashi received his Ph. D degree in Marine Ecology from Tokyo University. For many years, he has worked at the Fisheries Research and Education Agency of Japan for the mitigation of fisheries-marine wildlife interactions, the assessment of fishery impacts on marine ecosystems, and the management of high-seas bottom fisheries and demersal fish stocks. His current studies focus on the assessment of fish stocks, ecosystem status and fishing impacts thereon by using fishery data, fishery-independent data and information, and mathematical modelling with a final goal of developing an adaptive ecosystem-based management framework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regional marine ecosystems and local human communities.



Myung-beom CHOI

Director of National Marine Environment Education Center,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Myung-beom CHOI is the Director of National Marine Environment Education Center at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He received his B. A/M. A/Ph. D in Economics at Kyung Sung University. He started to work at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as Secretary of Department of Fisheries Development in 1999 and had served as Director of Marine Ecology Division and Director of Marine Environment Division by 2014.



GUO Ruidong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Finance and Trade Institute of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

Rui-dong Guo is an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in Finance and Trade Institute of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 He received his B.A. in Automation from Hebe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 in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from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Ph.D. in Technico Economics and Management from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He published a research paper called "Development of Regional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Pathways" in 2015 and received a prize for excellence from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 in 2016.



Kyoung-ho KO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Kyoung-ho KO is a visiting professor of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 Economics of Dankook University. He received his B.S., M.A.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nd Ph. D in Economics from Dankook University. He served as the Chief of Chungcheongnam-Do Economic Promotion Agency and the Special Adviser for Chungnam-do Economic Policy.



HAN Mei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She is the Deputy Secretary-General of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since September 2017. She graduated from Chongqing University, China and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 in 1998. She served as counsellor, deputy director of Major Regional Issues Division and the Office of Korean Peninsular Affairs in the Department of Asian Affairs, MOFA. She also served in the Chinese embassies in UK (2009-2013) and Thailand (2001-2005).



Sun-bae KIM

Director of Regional Industry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 & Trade (KIET)

Sun-bae KIM is the Director of Regional Industry Division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 & Trade (KIET). He received his B.A. in Geology and M.A. and Ph.D. in Economic Geograph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Advising Committee for the 16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in 2003 and an expert advisor of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4. He also served as a consultant for Chungnam 2030 Economic Vision.



Kazuoshi SASAKI

Director of Advertising Agency, PLUX

Kazuoshi Sasaki is a Director of Advertising Agency, PLUX. He came to Korea as a resident worker of Japanese Food Company in Korea in 2009. After publicizing Japanese foods and drinks for three years, he established an ad agency, PLUX, in Seoul, Korea. He has taken in charge of advertising Korea to Japanese businesses in Korea, managing inbound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and producing advertisements for Japan to Korean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 He has written Korean News for News Week Japan Web.

